

#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 CEO STORY

류재만 정호그룹 회장

### 조명·전력제어 솔루션 글로벌 1등 기업 꿈꾸다



#### IPC

조명제어와 디밍 기능을 수행하는 조명제어 기기의 직접적 제어 명령 처리 상태 정보를 저장해 전송하는 조명제어 시스템의 주 처리장치로, 다수의 IPC를 연동해 대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 CEO ACADEMY

세계 근로자가 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는 근로시간 단축  
P.02

#### IBK&START-UPS\_2

경남 '지역청년 창업활성화  
현장 간담회'  
P.36

#### IBK EXPLORING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P.38

2023.May VOL.218

# CONTENTS

2023. May. Vol\_218



발행일 2023년 5월 3일(통권 제218호)  
 등록번호 서울종라 00429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조봉현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7가)  
 Tel 02-729-6520  
 Fax 0505-077-0850  
 기획 IBK경제연구소  
 편집디자인제작 한국경제매거진㈜  
 인쇄소 (주)타라TPS  
 문의 031-945-1080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찾아가는 이메일 서비스  
구독 신청



<중소기업 CEO 리포트>  
지난호 보기

## CEO ACADEMY 02~15



### 근무 시간

- 02\_ FIGURE  
세계 근로자가 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는 근로시간 단축
- 04\_ HISTORY  
노동의 변화와 근로시간에 대한 담론
- 08\_ CASE  
얼마나 일할 것인가?  
세계는 지금 근로시간 실험 중
- 12\_ PLAN  
우리는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 01\_ 시론 벤처·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혁신의 길

- 16\_ CEO STORY  
류재만 정호그룹 회장  
조명·전력제어 솔루션  
글로벌 1등 기업 꿈꾸다
- 22\_ ESG FOCUS  
스타트업 ESG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

### 26\_ GLOBAL MARKET 세계 주요 은행의 위기와 코코본드

### 30\_ CEO'S GURU 시장은 만드는 것이다 CNN, 테드 터너

- 32\_ IBK & START-UPS\_1  
(주)틸다 정지량 대표  
(주)아고스비전 박기영 대표  
(주)알앤제이글로벌비스 오영철 대표  
(주)마이링크 박상일 대표

### 36\_ IBK & START-UPS\_2 지역에도 청년이, 새로운 시작이 있다 경남 '지역청년 창업활성화 현장 간담회'

### 38\_ IBK EXPLORING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 40\_ WITH IBK 어려운 기업 세무·회계, IBK가 도와드립니다 ONE-POINT 세무·회계 컨설팅

### 42\_ POLICAST 온라인 진출을 꿈꾸는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패키지 수출지원 프로그램

### 44\_ COMPANY & LAW TAX 기업상속공제 완화, 기업승계의 문턱을 낮추다

### 46\_ COMPANY & LAW LABOR 부당해고가 되지 않으려면? 고용 종료 시 알아두어야 할 '해고제한 규정'

### 48\_ ECONOMIC REVIEW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 50\_ CEO FAVORITES CEO의 즐겨찾기

### 52\_ IBK SUPPORT IBK ESG-산업안전 심화컨설팅 신규 지원



시론



IBK경제연구소 소장  
부행장 조봉현

최근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키워드는 '생존'이라고 한다. 고금리 기조와 함께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벤처투자 시장에 불황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3%, 78.6% 급감했다. 여기에 최근 미국 벤처 전문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겹치면서 벤처·스타트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제2의 벤처투자 붐으로 활성화되었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 고용 창출의 차세대 동력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번 충격으로 그 역동성이 저하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기술력을 갖춘 혁신적인 벤처·스타트업은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

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20일 총 10조5,000억 원 규모의 벤처·스타트업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데스밸리를 힘겹게 넘고 있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 벤처·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혁신의 길

3~7년 사이 중기 기업에는 용자와 후속 투자를, 7년 이상 후기 기업에는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촘촘한 정책을 구성했다.

은행의 역할이 강조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로 상향했고, 벤처 기술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촉진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이 담보, 재무제표 기반의 대출 위주에서 미래 가능성 기반의 투·융자로 더욱 진화·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과 같은 위기에는 자금 공급의 마중물이 되는 정책금융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기술만으로는 투자 유치가 어려운 초기 혁신 스타트업에 특화된 벤처투자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 외에도 컨설팅, 네트워킹 등 보육 지원과 비금융 지원도 함께 가동될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을 조성하는 정책형 벤처캐피털(VC)과 안정적 유동성을 공급하는 민간 VC와의 협업을 통해, 건강한 투자 생태계가 조성되어 한국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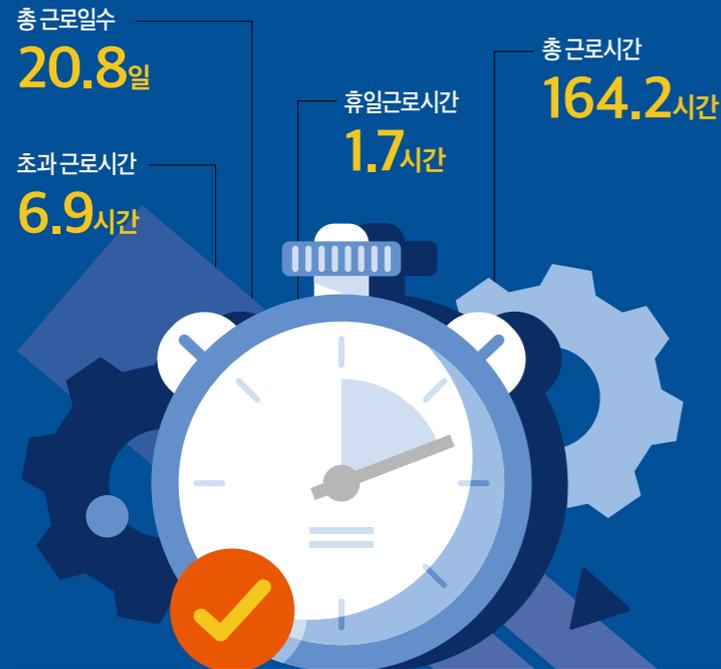
# 세계 근로자가 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는

## 근로시간 단축

많은 이들이 일하는 방식과 시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최상의 근로시간을 찾는 실험에 돌입했다. 국내외 근로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자.

### 우리나라의 월별 근로 통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한 달에 약 20.8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총 근로시간은 164.2시간이며, 초과 근로시간은 약 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주간 2020~2021년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 전 세계의 연간 근로시간

#### 많이 일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였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국가는 연간 2,128시간의 멕시코로 조사되었다.



#### 적게 일하는 국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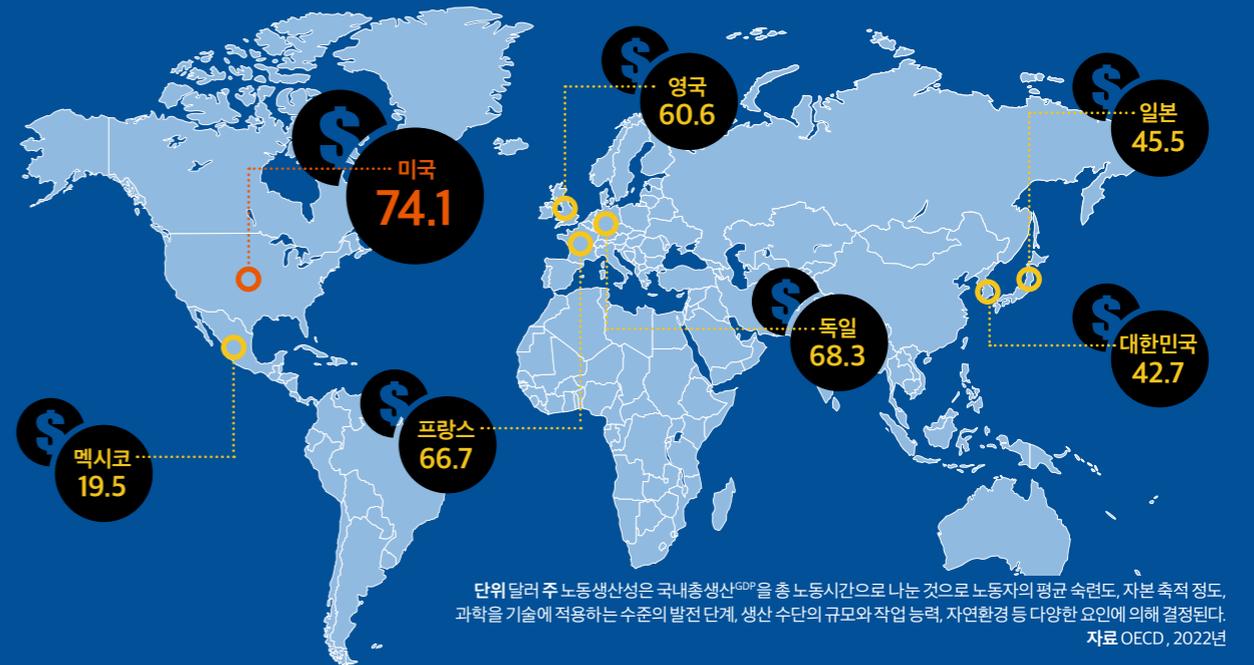
반대로 가장 적게 일하는 국가는 독일로, 연간 1,349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덴마크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들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단위 시간  
주 2021년 기준, 콜롬비아는 2020년 기준  
자료 OECD,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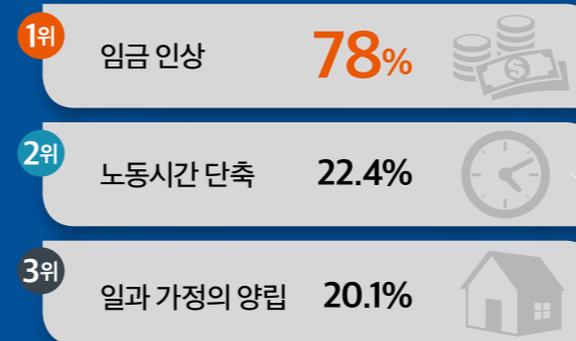
### 세계 주요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OECD에서 집계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22년 기준 시간당 42.7달러였다. 다른 주요국은 미국 74.1달러, 독일 68.3달러, 프랑스 66.7달러 등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노동생산성은 경제 전체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고 한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비교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우리나라는 낮은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 대한민국 직장인이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1순위는 '임금 인상'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그 뒤를 이었으며,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6.7시간으로 나타났다.



주 2022. 12. 7~14일 직장인 1,000명 대상  
자료 직장갑질119 엠브레인퍼블릭



주 2022. 9. 20~10. 7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 노동의 변화와 근로시간에 대한 **담론**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일하는 방식의 변화들은 막연하게 상상만 해 왔던 비대면 시대의 서막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제 기업과 근로자들은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일하는 시간을 넘어 방식과 수단, 성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많은 직장인이 오가는 서울 종로의 점심시간 근로시간과 일하는 방식은 산업 구조와 사회의 변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근무 방식의 변화를 경험했고, 이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근무 방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 근로시간 규율의 가장 큰 목표

최근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물론 노동정책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노동정책을 넘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자리 잡는 느낌마저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과는 달리, 근무 방식 변화의 틀인 근로시간제도의 개편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23년 3월 6일 발표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목표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제도 선진화를 위한 △근로시간 선택권(시간주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 등을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을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어떠한 수단을 활용해 이러한 목적과 방향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다. '주69시간 근무제'라

고 인식되는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단순히 노동계의 저항이냐 정치적 공세인지, 아니면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을 도출하는 데 본질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본질적 한계는 단순한 정책 수단의 타당성에 관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무리 합리적인 방안이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 물질 모르는 규범으로만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규율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 단순화하자면, 적어도 그 핵심에는 규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초 협약인 1919년 제1호 '근로시간(공업 부문) 협약'으로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규율은 단순히 '근로시간 제한 규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지난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산업 구조와 사회 변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의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 왔다.

### 근로시간, 규제에서 규율로의 전환

서유럽, 미국 등 소위 선진국을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는 주로 노동운동의 요구에 따라 근로시간의 길이를 줄이면서 휴일과 휴가를 확대·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이 대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

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었기에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전후를 비교할 때 생산량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구나 기독교 전통이 강했던 서유럽에서는 종교계의 요구로 안식일인 일요일에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가게들도 문을 닫고 쉬어야만 하도록 법을 정하거나 사회적 관행이 만들어졌다. 즉,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휴일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행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나에 관계없이 익숙해지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소득 수준에 연동해 근로시간 단축 정도가 영향을 받는 경향도 나타났는데, 대략적으로 서유럽, 미국 등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달했던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연간 근로시간은 이미 1,700~1,800시간 사이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서유럽에서도 1990년대부터 근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에서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을 맡고 있다.



재택근무가 끝난 구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기업들이 2년 만에 재택근무를 종료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시간 단축 움직임은 약화되고, 기존 표준화된 근무 형태(주 5일·9~17시 근무) 대신 시장과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들이 도입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큰 흐름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라고 설명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근로시간의 '규제에서 규율로의 전환'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다양한 교대제를 통해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고객들의 수요가 몰리는 때에 서비스 제공의 양을 맞추기 위해 연간근로시간제, 근로시간계좌제, 보상휴가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시간제 근로 활용이 늘었으며, 주말근로, 야간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할증률 등이 설계되고 도입되기도 했다. 또한 근로자 개인이나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권한이 확대된 것도 이 시기에 나타난 특징이다.

**낮은 틀로는 새로운 변화를 담을 수 없다**

우리의 논의로 돌아오면,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제정된 이래, 여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아래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  
서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달했던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연간 노동시간이 이미 1,700~1,800시간 사이로 줄어들었다.

러 차례 규정의 변화는 있었지만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소위 낮은 틀로는 새로운 변화들을 담을 수 없다는 미래 담론에서 근로시간제도는 항상 비판의 중심에서 있었다.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큰 흐름을 몇 가지 짚어보면, △법정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 △주 최대 근로시간 논의 △휴가제도 개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다. 그리고 그 주요 변천 과정을 요약하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1일 8시간, 주 4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채택하고, 이후 1989년 1일 8시간, 주 46시간, 1991년 주 44시간, 2003년 주 40시간(주5일제)으로 변화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근로시간 단축 과정과 함께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과 휴가제도 개편이 병행되어 왔으며, 자연스럽게 관행보다는 제도 개혁이 먼저 선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모습은 주5일제 도입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2003년 8월 29일 국회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주5일제)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가제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한 개정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휴가제도에 관한 변화다. 주5일제 도입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년 근속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는 대신 1년당 1일 가산에서 2년당 1일 가산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휴가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어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소진하는 제도가 나타났다. 이처럼 휴가의 부여와 사용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제도들은, 노사의 합리적인 타협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법률적 분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크다.

한편 지난 정부의 1주 최대 52시간제 도입 역시, 과거부터 문제되어 왔던 법률 분쟁에서 기인한다. 2008년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의 가산임금 소송에서 나타난 주 최대 근로시간 논쟁은 "1주 40시간과 연장근로 상한 12시간을 합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는 주장과 위의 '1주'는 휴일(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므로 5일 동안 52시간에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 8시간씩 합해 총 68시간이라는 주장"이 대립해 왔으며, 10여 년의 논의 끝에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입법적 해결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처럼 근로시간의 법률 분쟁화는 현실에서 다양한 근무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도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리스크가 제거된 상태에서만 다양한 근무 방식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주5일 근무제 시대 개막  
2005년 7월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맞이하는 첫 주말, 실내 놀이공원을 찾은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다양한 근무 방식의 변화가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 등 제도로 보장된 일정한 틀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접근법은 한계가 있다. 근로시간의 체계 개편은 다양한 '노동의 변화'를 이해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오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법제는 보편과 상식에 부합하고,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실효성 있는 법률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행위 지침이, 그 위반에 관해서는 형사 처벌을 포함한 제재 조치가 수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법률 언어로 획일적이고 강행적인 규제를 한다면, 노동 현장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이 허용하는 형태를 모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법이 금지하는 형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얼마나 일할 것인가?

## 세계는 지금 근로시간 실험 중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액 기준 세계 5위, 국내총생산<sup>GDP</sup> 세계 9위이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향후에는 금융, 서비스, 관광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전 세계에서 주4일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세계적인 흐름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아이슬란드 요쿨살론 전경 아이슬란드는 주4일제를 시행하는 대표적 나라로, 주4일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은 오히려 상승했고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와 일과 삶의 균형이 모두 크게 향상되었다.

주4일제에 대한 선행 요건은 3가지다. 첫째, 급여가 100% 동일할 것. 둘째, 생산성과 효율성이 동일할 것. 셋째, 근로시간을 20% 감축할 것. 이 3가지 요건만 맞으면 주4일제 32시간 근무는 성공적이다. 32시간 집중 근무로 주40시간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긴 편에 속한다. 멕시코가 세계 1위, 대한민국이 5위다. 이미 주4일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국의 사례를 알아보자.

### 성공적인 주4일제의 표본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학교, 유치원, 금융,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주4일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성공적인 국가다. 아이슬란드 근로자의 85%는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4일제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은 오히려 상승했기에 근로자와 경영자들이 만족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회의는 무조건 오후 3시 이전에 시행했다. 꼭 필요한 회의만 하고, 불필요한 회의는 최대한 줄였다. 또한 가능하면 회의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였다. 근로자들도 커피를 마시며 직원들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즐기고, 온라인과 전산화를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고도 임금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주4일제 시행에 따라 기업의 효율성과 생

산성은 올라갔고, 동시에 근로자의 피로도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낮아졌다. 근로자 본인의 업무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일과 삶의 균형이 모두 크게 올랐다. 이와 같이 아이슬란드는 집중적인 업무 몰입도와 생산성 향상으로 주4일제를 성공적으로 이어 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주 4일만 일해도 성과와 생산성이 40시간 일한 것과 동일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이윤 창출이다. 이윤과 생산성이 이전과 동일하기에 85%의 기업이 대부분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주4일제를 시행한다면 상대 기업도 업무 시간에 맞춰서 일해야 하기에 아이슬란드는 근로자가 대부분 주4일제로 근무한다.

아이슬란드 싱크탱크 오토노미 보고서에 따르면 참가자 10명 중 8명이 근로시간이 더 짧은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 단축은 오늘날 최첨단 경제 구조하에서 바람직하다. 각국에서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효율적인 근로시간 찾는 중 스웨덴

스웨덴은 하루 6시간 근무를 1990년대부터 수차례 시범 운영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스웨덴 예테보리의 노인요양병원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실시한 사례다.

격무에 시달리던 간호사들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 근무했다. 그 결과 8시간 근무했을 때보다 병가와 결근이 4.7% 줄었다. 절반 정도가 몸이 건강해졌으며 활력이 넘친다고 말했다. 환자에 대한 친절과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하면서 큰 비용이 들었고, 결국 이익보다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면서 실패했다.

이후 예테보리의 도요타자동차 정비센터는 2000년대부터 하루 6시간 근무를 도입해 성공했다.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2시간 줄이면서 직원 몰입도가 향상되었고 직원들의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이익이 증가했다. 그 결과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은 순이익이 증가했다. 근로시간을 줄인 대부분의 기업은 ‘내부 회의는 5분, 고객 회의는 30분, 근로시간 업무 집중화’로 생산성을 높였다.



스웨덴 쇠데르텔리에의 스카니아공장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임금과 근로시간을 각각 10%와 20% 줄였던 쇠데르텔리에의 스카니아공장.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무역학회 이사와 한국경영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연락 받지 않을 권리 벨기에

벨기에 정부는 2022년 2월 유럽연합 EU 회원국 최초로 주4일제를 도입했다. 벨기에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에서 최대 9시간 30분으로 늘어났다. 만약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10시간까지도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주 4일만 일해도 주간 최대 근로시간인 38시간을 채울 수 있다. 또한 주에 더 일하면 그다음 주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육아나 개인 생활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벨기에 법안에는 '연락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2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외에는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규정은 회사와 노조 간 합의가 필요하나, 연방정부 공무원은 이미 휴일에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알렉산더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코로나19 이후 근로자들은 유연하게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4.5일제 시행하는 아랍에미리트

2022년 1월부터 아부다비, 두바이로 구성된 아랍에미리트 UAE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를 휴일로 하는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UAE 정부는 모든 연방 부처가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로 하는 주4.5일 근무제로 전환했다. 그들은 세계 최초로 5일제보다 짧은 국가적 근무 체제를 갖게 되었다. 근로시간 혁신은 UAE가 걸프 지역의 뛰어난 비즈니스 허브로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과거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이슬람교의 성일인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는 주5일제를 시행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나라의 근무일에 맞춰서 금요일 오전을 업무 시간에 포함했다. 압둘라만 알아와르 UAE 연방정부 사무총장은 "민간 부문은 필요에 따라 주말을 결정할 수 있다"며 "노동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최소 주 1일 휴무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과 임금 감축 일본 미즈호파이낸셜그룹

일본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은 주4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도 줄이는 선택형 주4일제를 도입했다. 미즈호가 도입한 방식은 근로시간을 줄이되 임금도 20% 감축하는 형태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업무량을 줄이는 유연성을 근로자

주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벨기에에는 주 4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으며 2022년 2월 유럽연합 EU 회원국 최초로 주4일제를 법적으로 도입했다.



개인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주 3일만 근무하고 임금의 60%만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직원이 임금을 원래대로 받기를 원하면 다시 주5일 근무제로 돌아가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근로시간과 임금이 함께 줄었기에 근로자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다.

전 세계 근로시간 1위 멕시코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인 멕시코도 '1일 6시간' 근무를 제안했다. 히카르도 벨라스케스 멕시코 상원의원은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가를 확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핵심은 하루 최대 업무 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는 "근로자가 생산성을 올리려면 적절한 근무 조건과 충분한 휴식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보고서에서 멕시코는 2022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평균 2,128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다. 이에 멕시코는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 내에선 6시간 근무와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 간에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는 이와 같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워라벨을 실천하고 있다. 업무와 레저의 균형을 이루면서 인간다운 삶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멕시코 근로자 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긴 멕시코 역시 하루 최대 업무 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000달러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이미 2022년부터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은 더욱 혁신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생산성이 최하위에 속한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도 전 세계적인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축소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제조업 중심의 국가다. 한국 중소기업 수출 품목 상위 10개가 모두 제조업에 해당하기에 근로시간 축소와 확장은 민감한 문제다. 서비스 중심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 근로시간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기업과 근로자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 우리에게 맞는 근무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 우리는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연간 약 200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워라밸을 개선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근로시간에 대해 살펴본다.



퇴근 무렵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한국 경제의 9981,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건넬 수 있는 최고의 덕담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가 아닐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지난 10년 동안 10% (221시간)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1,716시간)보다 연간 약 200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다. 가장 많은 근로시간을 기록한 나라인 멕시코가 연간 2,128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213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시간을 일한 나라는 독일로 연간 1,349시간을 일했는데 우리나라

의 70.4%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수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아직은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어떤 기업에 많이 다니고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는 728만 6,000개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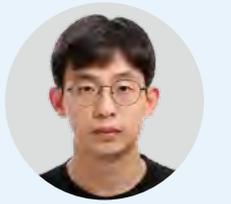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19.1%), 제조업(18.9%), 건설업(10.2%)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 수치상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중 절반은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

그렇다면 이들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2023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전 산업 300인 미만(중소기업) 규모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6.5시간으로 300인

이상(대기업)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인 167시간보다 0.5시간(30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30분 적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규모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인 규모 사업체가 158.8시간, 5~9인 규모 사업체가 161.9시간, 10~29인 규모 사업체가 168.6시간, 30~99인 사업체가 172.7시간, 100~299인 사업체가 172.7시간으로 중소기업 내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인 규모의 사업체를 제외한 10~29인 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근로시간이 대기업(167시간)보다 많다. 또한 중소기업의 평균 근로시간은 대기업보다 적었지만, 우리나라 중소기



임수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동향분석팀 선임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고용 동향 분석을 맡고 있으며,  
관심 연구 분야는 융용미시와  
정책평가다.

주요 업종별 월평균 근로시간

구분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300인 미만(중소기업)	170.8	181.7	136.7
300인 이상(대기업)	163.8	174.4	176.7

단위 시간 주 2022.12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중소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사업체 규모	근로시간
1~4인	158.8시간
5~9인	161.9시간
10~29인	168.6시간
30~99인	172.7시간
100~299인	172.7시간

주 2022. 12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업 근로자의 절반이 종사하는 3가지 업종(도소매업·제조업·건설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도소매업과 제조업 모두 근로시간이 대기업보다 각각 7시간, 7.3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 산업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대기업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나 사업체의 규모나 중소기업 가운데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대기업보다 많은 업종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52시간제가 기업에 미친 영향**

지난 정부는 근로자의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 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근로기준법'을 개정(2018년 3월 20일)해 근로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시기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사업체 규모별로 달랐다. 구체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가장 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2018년 7월에 가장 먼저 단축되었고, 뒤이어 2020년 1월에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에 5~49인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지난 정부가 밝힌 근로시간 단축의 1차 목적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의 총 근로시간은 단축되고 줄어든 근로시간을 메우기 위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연 정말 정책 시행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났을까?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저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과 행복도의 관계에서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일 때 행복도가 가장 높았고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낮아졌다.

하지만 2022년 12월에 발행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의도와 달리 근로시간 단축은 신규 고용을 늘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에 발행된 중소벤처기업연구

원의 보고서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과제'에서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1.4%는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중소기업의 28.4%만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 인력을 고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77.4%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향후 인력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거나 매우 크다고 응답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82.5%)이 서비스업(60%)과 기타 업종(78.1%)에 비해 인력난 심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을 유지하려는 노동자와, 신규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업주의 입장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고용량을 증대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바는 아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보완해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제도 개편 브리핑에 따르면 총 4가지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첫째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이며, 둘째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다. 셋째는 휴가 활성화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  
지난 12월 열린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구경주(썬이플러스마트 대표)가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는 유연한 근무 방식의 확산이다. 주 69시간제라고 하니 기존의 주 52시간제에 비해 근로시간이 17시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9시간은 한 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내며 만약 특정 주에 일을 많이 했다면 다른 주에는 일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놓고 찬반 논란이 많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정부, 기업, 근로자가 잘 협의해 근로자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도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실험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018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개정안

구분	개정 전	구분	개정 후
정규 근로	기본근로 40시간	정규 근로	기본근로 40시간
초과 근로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포함)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합계	68시간	합계	52시간

### 정호그룹

# 조명·전력제어 솔루션 글로벌 1등 기업 꿈꾸다

— 정호그룹은 섬유기계장비 무역업으로 시작해 조명제어, 전력제어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다소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현재는 조명·전력제어 사업을 중심으로 신시장 개척과 사업 다각화에 주력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속 가능하고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류재만 정호그룹 회장을 만나 그간의 사업 성과와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 1982년 5명의 직원을 보유한 섬유 기기 오피상으로 시작한 정호물산(정호텍스컴의 전신)은 현재 정호티엘씨, 클라루스, 일루텍, 정호텍스컴 4개의 계열사를 둔 기업으로서 현재까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호그룹은 주력 사업인 조명·전력제어 부문과 기존 섬유 기기 공급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사업을 세분화함으로써 계열사별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호티엘씨는 빌딩자동화시스템BAS의 한 분야인 조명제어 시스템을 전문으로 다뤄 왔다. 국내 최초로 '원샷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One-shot Remote Control System'을 일본에서 들여와 보급했으며, 해외 제품이 주를 이뤘던 상업용 빌딩

조명 시스템을 국산화해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해 왔다. '클라루스 CLARUS'라는 국산 브랜드를 앞세워 국내 조명제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중국 등지로 뻗어 나가며 글로벌 시장에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정호티엘씨가 내수를 담당한다면 클라루스는 조명제어 시스템의 생산, 개발은 물론 해외 수출도 담당한다. 일루텍은 친환경 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 LED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다. 1982년 설립 이래 세계적인 섬유기계 장비와 시험 기기 해외 메이커의 독점 수입·판매사로서 국내 섬유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정호텍스컴은 최근 의류·패션 브랜드 '레드삭수'를 론칭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시장에 뛰어 들었다.



**류재만**  
정호그룹 회장



국산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토대로 세계 1등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류재만 회장은 한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글로벌 시장에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수입 오퍼상에서 시장 선도하는 제조사로

류재만 회장은 정호물산 설립 2년 후인 1984년 회사에 입사했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당당히 세계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늘 무역업에 대한 꿈을 꾸던 중 당시 영어 실력이 뛰어난 직원을 찾고 있던 정호물산에 스카우트 되었다. 입사 후 류 회장은 독일 연수를 간 지 1개월 만에 기계장비 운전과 사후관리 등 필요한 교육을 수료하고 짧은 기간에 업무를 숙달하는 등 남다른 모습을 보였다. 1980년대 중후반은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건설 산업이 중흥기를 맞이한 시기였다. 전자공학 전공

지속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안정적인 기업체를 만들어 다음 세대가  
멋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로서 평소 전기·전자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류 회장은 일본 파나소닉이 조명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명 제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올림픽 경기장에 설치되는 조명의

70% 이상이 파나소닉 제품이었을 만큼 시장점유율 Market Share은 압도적이었다. 류 회장은 당시 회사 설립자인 박종규 회장을 설득해 파나소닉의 국내 에이전시로서 조명제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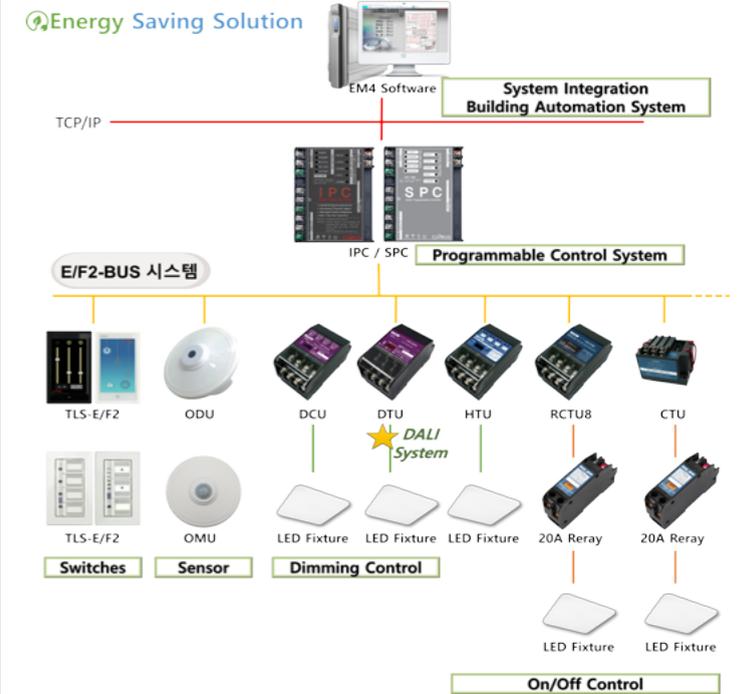
이후 일본 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제품 국산화를 통해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했고, 파나소닉의 제품과 차원이 다른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마침내 훨씬 뛰어난 성능의 2세대, 3세대 격인 차세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초기에 일본에서 제품을 들여와 판매했을 때 국내에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거래하면서 그들의 은근한 우월감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제품으로 이를 극복하리라 다짐하며 연구·개발 R&D에 매진해서 마침내 이루어낸 것이죠.”

류 회장은 입사 후 15년 만인 1999년 11월 전임 회장으로 부터 정호티엘씨를 물려받았다. 경영주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기업승계 관행에 비춰볼 때 직원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IMF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는데 창업주가 회사를 팔고 정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며 계속 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 1년 뒤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저에게 회사를 물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죠.”

조명제어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 정조준

이후 정호티엘씨는 조명제어 시스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조명제어 시스템은 건물에 설치된 수많은 조명에 디지털 신호를 보내고 한 곳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자동조명제어 기술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세심한 기술력을 요하는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발주자들이 시스템 전반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정호티엘씨는 스위치와 같은 배선기구부터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개발·생산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어떠한 환경에도 완



정호티엘씨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 Energy Saving Solution·ESS LED 조명과 정보통신기술 ICT을 융합해 주변 환경과 사람의 유무 등에 따라 스스로 작동과 조도 등을 제어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정호티엘씨의 대표적인 솔루션이다.

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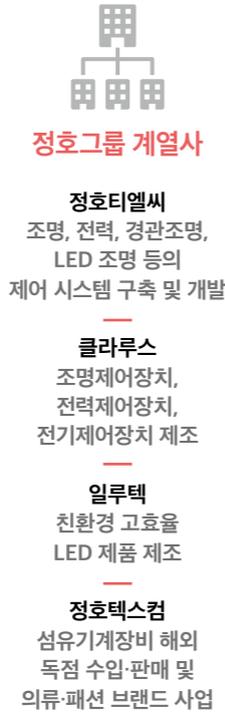
2012년에는 국책과제로 진행된 'LED 시스템 조명 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해 국내 LED 조명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호티엘씨는 과제 착수 후 2년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등기구, 센서, 제어 기기, 배선 등 핵심 기술과 국제표준을 보유한 글로벌 조명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현재 정호그룹의 조명제어 시스템은 클라루스 브랜드를 앞세워 북미 지역과 중국, 대만 등지에 활발히 수출되고 있다.

“우리는 다른 국내외 업체들과 차별화되는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조명제어의 핵심이 되는 부품인 릴레이에 대해 일본 기업도 포기했던 미국 안전 기준인 'UL 인증'을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었죠. 미국 수출을 가장 먼저 타진했던 이유는 미국이 품질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를 쌓아 가면서 해외 수출 비중을 크게 확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B2C 사업으로 새로운 활로 모색**

류 회장의 도전은 패션 B2C 사업 부문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정호텍스컴 내에 유통사업부를 신설하고 의류·패션 브랜드 사업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과거 정호텍스컴



의 중장기 방향성을 고민한 끝에 야심 차게 사업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만큼은 우리 회사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내의와 양말을 팔기 시작했는데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 19 이후 활성화된 온라인 시장을 공략하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호텍스컴은 2021년 사랑과 열정, 따뜻한 함의 의미를 담은 브랜드 '레드쌍수'를 론칭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그레핀, 면실켓 등 특화된 소재와 독창적인 캐릭터 디자인, 다양한 패키지 구성 등의 전략으로 입점한 온라인 매장마다 큰 반향을 일으킨 브랜드 레드쌍수는 2021년 말 온라인 패션 플랫폼 '29CM'에 입점해 가파른 매출 상승세를 보인 데 이어, 올 4월 역시 파급력 높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입점하면서 또다시 큰 폭의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호텍스컴은 올 6월 오랜 기간 야심 차게 기획한 고품격 유니크 보디웨어 브랜드 'RSS'까지 본격 론칭해 제품 판매에 가세할 예정이다.

류 회장은 세부적인 수치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보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자신의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세계 1등 기업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정호그룹의 무한한 잠재력이 어디까지 뻗어 나가게 될지 기대해본다. 📖

**History**

- 1982. 정호물산(현 정호텍스컴) 설립
- 1990. 조명제어용 소프트웨어 개발
- 2003. 정호티엘씨 상호 변경
- 2003. 일루텍 설립
- 200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09. 원자력발전소 유자격 공급자 등록 및 제품 납품
- 2012. 조명제어 시스템 북미·동남아시아 지역 수출
- 2016. 조명전기설비학회 조명기술 발표
- 2018. 서울 여의도 파크원<sup>Parc.1</sup> 수주



**STRENGTH**  
정호그룹의 4가지 핵심 경쟁력

**빠른 판단과 실행력**

유통 사업 부문의 판매 부진 요인을 분석하고 마케팅과 판매 전략을 전환하는 등 빠른 판단과 실행력은 독자적인 기술을 지닌 제조사로 거듭나는 요인이 되었다.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확보**

자체 연구 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며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조명제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개**

전등제어 부문의 '클라루스', 의류·패션 부문의 '레드쌍수' 브랜드를 앞세워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상의 품질 추구**

품질 관리 기준이 매우 엄격한 미국 시장에서 최상의 품질을 인정받으며 해외 수출의 발판을 마련, 제품과 기술력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통해 수요처 확대를 이루어 나갔다.





영국 맨체스터대 유엔 SDGs를 위한 대학역량 순위 1위에 오른 맨체스터대가 위치한 맨체스터는 학교는 물론 도시 곳곳의 기관, 기업, 커뮤니티 등에서 ESG 담론을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넘쳐난다.

### ESG 변화를 이끄는

#### 영국의 기업가 정신 생태계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는 2010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스투어디십 코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한 2020년 개정안을 발표했고, 에너지산업부(BEIS)는 지속 가능한 산업 목표를 위한 스타트업에 대한 책임투자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0년 영국 정부는 녹색 산업혁명(Green Industrial Revolution)을 발표해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 스타트업·ESG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

영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산업의 분야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 같은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그 흐름을 이끌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인지 도시 곳곳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담론들을 바탕으로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가득하다. 경제, 산업의 가치관 변화에 직면해 다음 단계로의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에 영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대한 ESG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특히 영국 정부가 혁신 국가를 기치로 주력하고 있는 북부 잉글랜드의 도시 맨체스터는 기업이 정신 생태계의 미래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이는 ESG가 단순히 경제와 산업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론적 현상이 아니라 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발생했고,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인류사의 가장 큰 전환에 기여한 맨체스터는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수많은 변화와 그 파고를 경험해 왔다. 그리고 이는 발현된 다양한 담론들을 사회학적·자연과학적 관점에서 철학적으로 고찰하고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수백 년간 이어져 왔으며, 영국인들의 내면에 자연스럽게 관습화되었다.

지금도 부촌에 속하는 신시가지인 에인절미도(Angel Meadow)는 산업혁명 당시에는 지구상의 지옥(Hell on Earth)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악했던 노동자들의 거주지였다. 생산성과 경제성은 당시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노동자는 이것에 그들의 삶을 맞추며 좁고 불결한 공간에서 희생을 강요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오랜 시간 매우 지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후 맨체스터 시민(Mancunian)들의 자성과 맨체스터 학파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의 고민은 노동, 인권, 환경에 대한 담론들을 이끌어냈고 기술과 산업을 바라보는 인류의 시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후 광역 맨체스터에 위치했던 세계 최초

의 협동조합인 코옴(Co-op)부터 사회적 기업, 영국 최초의 여성 인권에 대한 캠페인, 노동자들의 연대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담론을 모두 담는 전환적 혁신(Transformativ Innovation)까지, 맨체스터는 수많은 가치의 탄생지였고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백 년간 축적된 이러한 경험과 교훈은 지금까지 맨체스터가 지속 가능한 산업과 경제를 만들어 가는 데 가장 큰 경쟁력이 되었다. 특히 가장 역동적인 분야 중 하나인 기업이 정신 생태계는 그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이 정신이나 혁신의 개념처럼 단순히 도상 기술이나 그 상업적 이용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여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 코옴  
영국 맨체스터에서 시작한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협동조합인 코옴은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맨체스터의 수많은 사회적 기업들을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박태제**  
익스타트아시아 이사회 의장  
맨체스터혁신연구소에서 기업이 정신 생태계와 혁신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영국 왕립예술제조산업학회 석학회원, 왕립인류학회 석학회원을 역임하고 있다.



영국  
스타트업 비자 Start-up Visa

영국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2년간 영국에 머무르며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

비자 발급 조건

나이 18세 이상

실행 가능성

영국정부인증기관의 사업아이디어 승인

영어

유럽공통참고기준 CEFR

B2 레벨 이상

재정 능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예금잔액 확보

(1,270파운드·약 200만 원)

성, 아동, 노인, 외국인 등 다양성을 존중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가치들을 토대로 존재한다.

진보적 담론들이 넘쳐흐르는  
영국의 스타트업

맨체스터에 위치한 맨체스터대는 타임스 고등교육대학 임팩트 랭킹과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를 위한 대학 역량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도시 곳곳의 기관, 기업, 커뮤니티, 소사이어티에는 ESG 담론들을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넘쳐난다. 이것은 분명히 이 지역이 인류 문명 속에서 유난스럽게 경험하고 지켜 온 유산의 영향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맨체스터는 이와 같은 진보적 담론을 바탕으로 설립된 스타트업들로 가득하다. 특히 인권, 노동, 환경과 같은 거대한 담론부터 집단의 권리, 지역의 문제와 같은 지엽적 담론들까지 기업가들은 다양

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벡터 홈즈 Vector Homes는 영국의 급등하는 주택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우선 주택 건설 비용과 시간의 감소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조립이 가능한 주택 모듈을 생산하고 이를 제공한다.

이것은 단순히 낮은 가격에 기술적으로 간단한 주택 건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급등하는 주택 가격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상쇄할 만한 기술적·기능적 장치들을 바탕으로 대체 가능한 주택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의 고민뿐만 아니라 주택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환경과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제품 그리고 기업의 가능성 또한 끊임없이 확인하는 효과를 낳는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윈드롤 그룹 Windroll Group 또한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 목적을 갖는 비즈니스를 설립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환경오염이나 정치·정책적 접근만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시장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담론은 근원적 진리를 우선 탐색해야만 하고 이해관계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혁신 모델들을 제시해

야 한다. 이들은 이를 위해서 에너지와 환경 문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기업은 인공지능 AI와 같은 도상 기술을 방법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와 탄소 저감 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며 자연스럽게 환경 이슈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들 스타트업의 공통점은 지속 가능하고 전환적인 사업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은 이외의 기업들도 가치지향적인 사업들로 전환하는데 적극적이다. 특히 단순히 정책적으로 혹은 사회 문화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담론들을 강요나 타의에 의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철저한 이해 속에서 기업가로서 해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특별히 의미 있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

분명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었고 공간적·개념적으로 세분화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환경, 사회와 같은 용어나 도메인으로 이를 재단하고 해결하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은 특정한 현상이나 문제를 탐닉하며 이에 대한 집중력과 끈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이고 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가 혹은 혁신가로서 이를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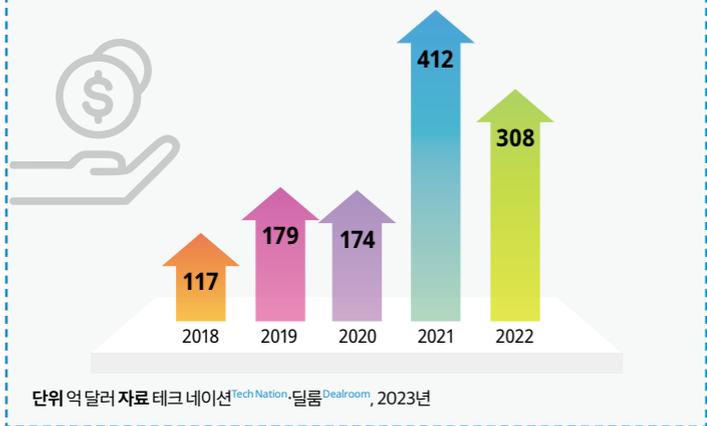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제어해 최적화하는 윈드롤 그룹의 라이트 스위치 Light Switch  
윈드롤 그룹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와 탄소 저감 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며 자연스럽게 환경 이슈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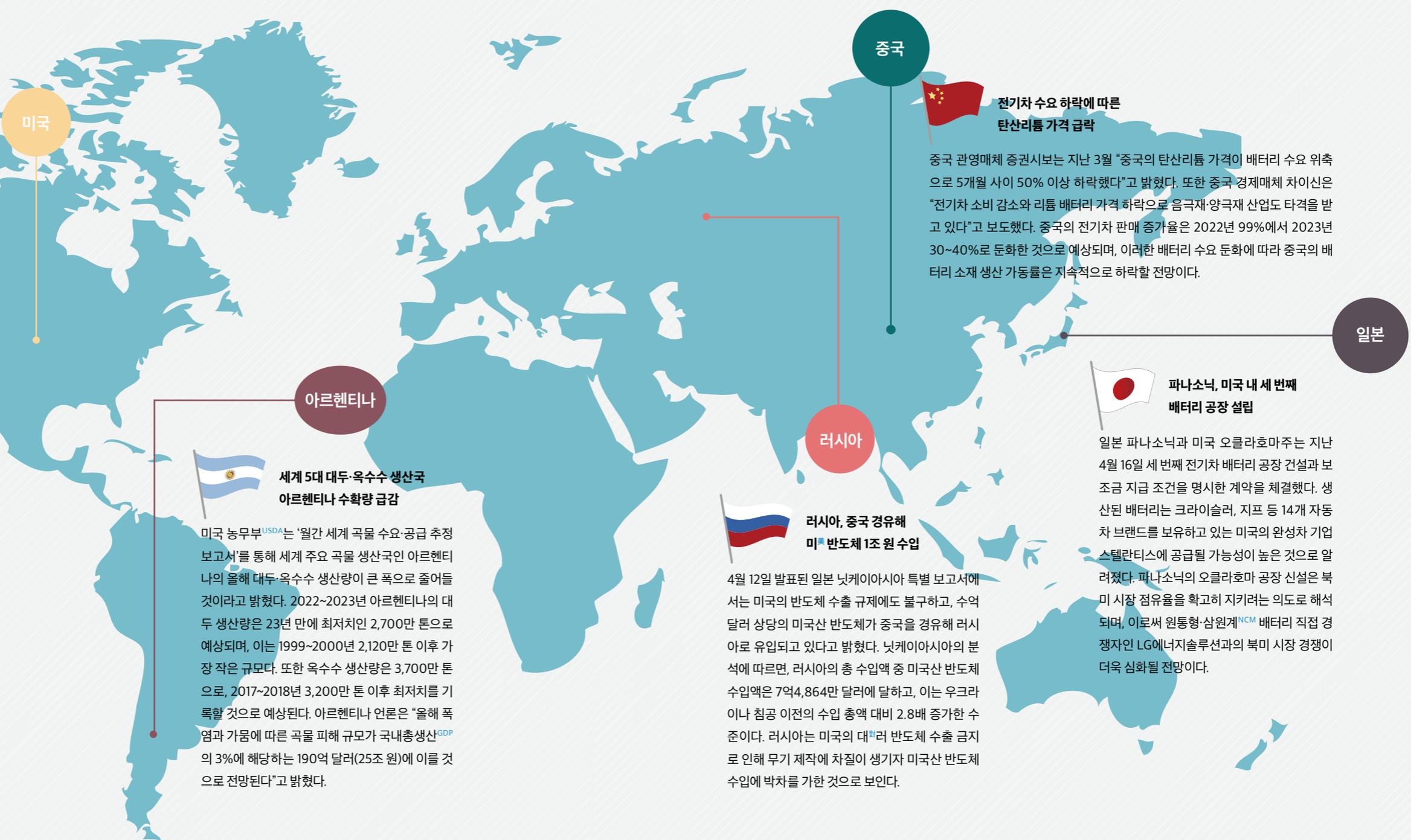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기준 준수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악용하고자 하는 그린워싱 Green Washing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들 또한 존재한다. 당연히 영국 내에서도 모두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며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 또한 당면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영국은 ESG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히 정책 및 제도적 구속력을 넘어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가 정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경제와 산업의 가치관 변화에 직면해 다음 단계로의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가들 또한 이러한 시사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도별 영국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금액



# 지도로 보는 글로벌 마켓



미국

### 미국 환경청, 2032년까지 신차의 67% 전기차로 대체

미국 환경청(EPA)은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자자동차로 대체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0%로 늘리겠다는 기존 계획에서 대폭 상향된 목표다. 2022년 기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8%가 전기차였으며, 2021년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는 3.2%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전기차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어야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다. 많은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전기차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규정을 통해 강제로 전기차 전환 속도에 박차를 가하면 전기차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 세계 5대 대두·옥수수 생산국 아르헨티나 수확량 급감

미국 농무부(USDA)는 '월간 세계 곡물 수요·공급 추정 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올해 대두·옥수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2022~2023년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23년 만에 최저치인 2,700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1999~2000년 2,120만 톤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또한 옥수수 생산량은 3,700만 톤으로, 2017~2018년 3,200만 톤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올해 폭염과 가뭄에 따른 곡물 피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190억 달러(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



### 전기차 수요 하락에 따른 탄산리튬 가격 급락

중국 관영매체 증권시보는 지난 3월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배터리 수요 위축으로 5개월 사이 50%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전기차 소비 감소와 리튬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음극재·양극재 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2022년 99%에서 2023년 30~40%로 둔화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배터리 수요 둔화에 따라 중국의 배터리 소재 생산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러시아



### 러시아, 중국 경유해 미 반도체 1조 원 수입

4월 12일 발표된 일본 닛케이아시아 특별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반도체가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닛케이아시아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총 수입액 중 미국산 반도체 수입액은 7억4,864만 달러에 달하고,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의 수입 총액 대비 2.8배 증가한 수준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대러 반도체 수출 금지로 인해 무기 제작에 차질이 생기자 미국산 반도체 수입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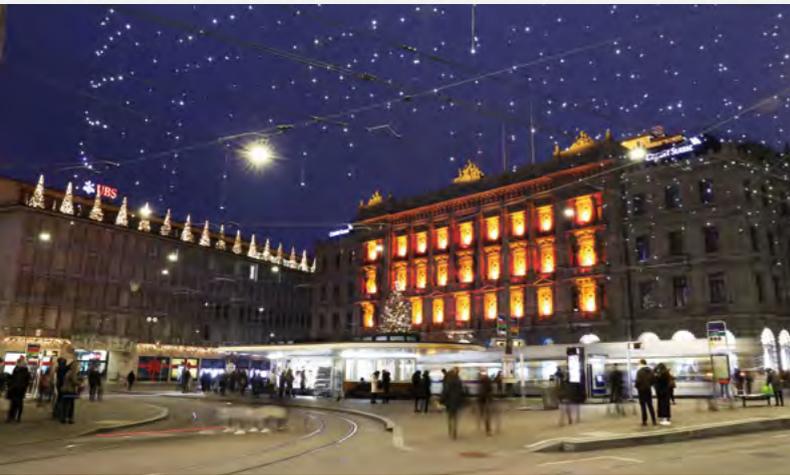


### 파나소닉, 미국 내 세 번째 배터리 공장 설립

일본 파나소닉과 미국 오클라호마주는 지난 4월 16일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과 보조금 지급 조건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했다. 생산된 배터리는 크라이슬러, 지프 등 14개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완성차 기업 스텔란티스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소닉의 오클라호마 공장 신설은 북미 시장 점유율을 확고히 지키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이로써 원통형·삼원계(NCM) 배터리 직접 경쟁자인 LG에너지솔루션과의 북미 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세계 주요 은행의 위기와 코코본드

지난 3월 세계 각국의 주요 은행이 연이어 파산하며 세계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은행 위기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코코본드에 대해 알아보고, 채권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본다.



스위스 취리히에 나란히 위치한 UBS와 CS 본사(2020년) 지난 3월 스위스 정부는 은행 위기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UBS에 CS를 인수하도록 요청, 현재 UBS와 CS의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세계금융위기, 질서 변환, 중견국 경제외교>(2021년) 등이 있다.

•• 지난 3월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실버게이트은행, 시그니처은행이 연이어 파산했으며, 유럽에서는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CS)가 몰락했다. 1984년 설립된 SVB가 미국에서 열여섯 번째, 1856년 창설된 CS는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 장기채 투자로 발목 잡힌 SVB

SVB와 시그니처은행은 미 금융당국에 의해

폐쇄된 후 매각 절차에 들어가 있으며, CS는 스위스 정부의 주선으로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에 인수·합병(M&A)이 결정되었다.

국적, 역사 및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두 은행 모두 채권 투자의 실패로 붕괴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SVB가 저지른 가장 큰 실책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미국 장기 국채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미국 국채는 신용 위험이 사실상 없으며 단기채보다 장기채의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합리적인 투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급속히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 그 결과 채권 평가 손실액이 지난해 말 약 15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SVB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유가증권을 매각했으며, 3월 8일 150억 달러를 차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권 매각으로 18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같은 날 SVB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2에서 Baa1으로 강등시켰다. 이러한 소식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퍼져나가자, 9일 하루에만 약 420억 달러의 예금이 인출되었다. 그다음 날 SVB 주가가 66% 폭락하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SVB의 은행업 허가를 취소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관재인으로 지정했다.

### 코코본드 상각으로 손해 본 투자자들

SVB 파산의 충격은 대서양 건너편으로 전이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위험이 급증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스위스의 CS,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SG·BNP 파리바스 BNP Paribas), 독일의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주가가 폭락했다.

이 중 연이은 스캔들과 투자 손실로 비판을 받고 있었던 CS가 3월 15일 파산할 수 있다는 소문이 금융 시장에서 빠르게 퍼졌다. 이에 은행 위기의 위험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는 18일 UBS에 CS를 인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스위스 중앙은행은 합병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CS의 부실채권에 대비하기 위해 UBS에 2,000억 달러의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다.

UBS의 CS M&A에는 조건부 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또는 기타기본자본 Additional Tier 1))의 약칭인 코코본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원칙적으로 이 상품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손실로 처리되어 상각될 수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금융기관과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는 투자자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이 상품의 인기가 상승했다. 역대 최고인 연 9.75% 이자율로 2022년 6월 CS가 발행한 16억 달러 규모의 코코본드는 유럽은 물론 미국과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UBS는 M&A를 결정할 때 CS의 코코본드 전액을 상각했다. 이 조치는 상각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CS 주주에게 UBS의 주식을 22.48대 1의 비율로 제공한 조치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업의 파산 시 변제 절차에서 채권이 주식보다 선순위에 있다는 원칙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연쇄적으로 채권을 투매하는 본드런의 위험이 대두했다.

### 은행 위기의 3가지 교훈

SVC와 CS의 사례는 채권 투자에 3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자산 구성에서 채권의 비중이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수익률이 감소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이자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채권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둘째, 채권의 만기도 중요하다. 이자율만 보면,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수익성이 좋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할 때는 단기채보다 장기채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장기채와 단기채의 구성을 이자율 변화에 맞춰 수시로 조정해야 한다.

셋째, 코코본드와 같은 하이브리드 채권의 위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높은 이자율에 현혹되어 채권에 내재된 리스크를 경시할 경우, 회사가 파산하거나 M&A 될 때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SVB 파산과  
뱅크런 사태

2023년 3월 9일  
SVB 고객  
예금 인출 시도 금액

420억 달러  
(약 55조6,000억 원)

주 2022년 말 총 예치금  
1,754억 달러

# 시장은 만드는 것이다 CNN, 테드 터너

테드 터너. 그는 기업가라고 하면 으레 떠올리는 대중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전미요트대회에 출전해 우승하는가 하면, 만년 꼴찌인 프로야구 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인수해 자신이 직접 감독으로 나서기도 했다. 세계 최초의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인 CNN(Cable News Network)을 출범시켰으며, 은퇴 후에는 환경보호자이자 자선사업가로 활동 중인 언론계의 이단아, 테드 터너를 만나보자.



강준형  
도서출판 경제21C 대표  
경제 분야 출판사를 운영하며, 관련 강의, 집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딱 이만큼의 경제학>, <알기 쉽게 풀어 쓴 경제학 시리즈> 등을 출간했다.

## 독하게 일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테드 터너는 1938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기독교계 군대식 기숙학교인 매컬리 스쿨을 다니면서 방학 때는 아버지 회사에서 입간판 설치 일을 도왔다. 브라운대에 진학한 후에는 고전문학에 심취하기도 했으나 사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이를 못마땅해했고, 결국 학비 지원을 끊는다. 이렇게 터너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한다(불행히도 그의 아버지는 몇 년 후 인수·합병M&A에 따른 채무 부담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한편 1965년 들어 '고속도로 미화법(Highway Beautification Act)'이 통과된다. 도로 주변 입간판의 숫자를 제한해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는데, 아마 터너는 이때부터 TV 시대를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광고 사업을 확장함과 동시에 라디오국을 인수하기 시작했고, 1970년에는 애틀랜타 지방 방송국을 인수한다. 이후

브레이브스(야구), 호크스(농구) 중계로 지역 내 입지를 굳혔으며, 통신위성을 이용해 지역 방송국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 방송국으로 제공하는 '슈퍼스테이션'을 선보였다. 방송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1980년에는 24시간 뉴스를 표방한 CNN을 설립했으며 1988년에는 터너 네트워크 텔레비전(TNT)을 선보이기에 이른다. 타임워너와 합병한 후에는 부회장직에 올랐다. 미디어 황제, 언론 재벌의 이름을 알린 순간이었다.

## CNN, 24시간 뉴스 시대를 열다

터너의 업적으로는 단연 CNN 설립을 들 수 있다. 당시만 해도 뉴스는 메이저 언론, 즉 뉴욕에 위치한 3대 방송사(NBC·ABC·CBS)의 전유물이었다. 백악관 출입도 이들만이 가능했던 시절이다. 여기에 그가, 심지어 애틀랜타라는 변방에서 도 전장을 내민 것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누가 하루 종일 뉴스를 보겠느냐”며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뉴스란 일어났던 일을 전달하는 게 아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달하는 것이다.” 첫해에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운영비를 줄이고자 별의별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닭고기 국수 뉴스(Chicken Noodle News)'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럼에도 터너는 뜻심으로 버텼다. 예상은 이내 맞아떨어졌다. 1991년 걸프전 생중계로 사람들이 CNN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5년까지

7,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유선방송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까지 받던 CNN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 뉴스매체에 등극했다. 격변하는 세계정세를 일체의 가공 없이 전달한 덕분이었다. 터너는 1991년 타임지가 뽑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었다.

## 목표를 잡아라.

### 평생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터너는 우리 기업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 첫째, 시장조사를 통해 숨겨진 수요를 찾는 일이다. 그는 심야시간대에 토크쇼가 아닌 영화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일요일 아침에 예매 프로그램이 아닌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으리라 판단했다. 그리고는 경쟁사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사람들에게 충분히 선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주었다. 둘째, 상투적이지만 현금의 중요성이다. 터너는 아버지의 회사를 지켜내는 상황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때 현금 대신 주식 지불을 제안했다. 경영자 입장에서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가용자금이 줄면 경영 압박이 거세진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100만 달러라고 해도 누군가는 현금보다 주식, 또 부동산을 원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 셋째,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다. TV의 가능성을 예상한 그였지만 정작 세부 사항은 알지 못했다. 그는 지위를 막론하고 방송국 매니저를 비롯해 지역 경쟁사 관계



“이끌거나 따르거나, 비켜서라.  
Lead, follow or get out of the way”  
테드 터너

자까지 만났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정보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지금 자신이 상대에 비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깨닫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그의 명언이기도 한 “이끌거나 따르거나, 비켜서라(Lead, follow or get out of the way)”를 소개한다. 대개 ‘get out’을 해고로 해석하기 쉬운데, 현대 경영에서는 리더와 팔로어의 관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리더는 누구인가? 형식적으로는 오너다. 하지만 회사가 어느 정도 크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오너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팔로어의 위치에서 직원 의견에 경청하고 인정할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한 것이다.

## CNN의 주요 뉴스 평균 시청자 수



단위명  
주 2021년 기준  
자료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마포 10기  
(주)틸다

정지량 대표

AI 솔루션 통해 이루는  
제조 최적화

틸다는 휴먼 에러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을 통해 제조설비 운영을 효율화하는 인공지능<sup>AI</sup>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의 제조 최적화를 지원한다.



Questions

- 01. 틸다에 대해 소개해 달라.
- 02. 제조 최적화 서비스 아그맥스 ArgMax에 대해 설명해 달라.
- 03. 해당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04. 틸다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Answers

- 01. 틸다는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을 통한 제조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대다수의 기업에서 엔지니어가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비를 운전하고 있지만 여러 데이터와 제약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설비 운전은 AI를 통한 정확성 확보로 효율화를 이룰 수 있기에 해당 서비스를 개발했다.
- 02. ArgMax는 생산량을 늘리거나 에너지나 자원 소비량을 줄이고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특정 설비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ArgMax는 제조 이외의 다양한 산업에서도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계속해서 여러 산업 분야의 최적화 서비스를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 03. 제조 최적화 AI 솔루션 시장으로 보았을 때 국내 1,000억 원, 글로벌 2조 원가량의 시장이 연평균 30% 정도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체 산업으로 확장하면 국내 8,000억 원, 글로벌 72조 원 규모에 이르는 시장을 이루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포함해도 제조 AI 솔루션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up>SaaS</sup>로 제공하는 곳은 매우 드물다. 이에 틸다는 우선 제조업 비중이 큰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선점할 계획이다.
- 04. 에너지·원자재 가격의 급등, ESG 및 탄소중립의 빠른 강제화로 틸다에 유리한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가 필요한 설비 교체나 설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존 설비 운전의 효율화를 이루는 것은 비용을 줄이면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중소 제조 기업과 제조 중심의 동남아시아 국가에 특히 필요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향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기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IBK창공<sup>IBK</sup>은 '창공<sup>IBK</sup>을 통해 창공<sup>IBK</sup>으로 비상하라'는 의미를 가진 '창업<sup>IBK</sup>공장<sup>IBK</sup>'의 줄임말로, IBK기업은행이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구로 9기  
(주)아고스비전

박기영 대표

3D 카메라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다

아고스비전은 기존 3차원<sup>3D</sup> 카메라의 한계를 넘어 지능형 시스템의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며 3D 카메라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Questions

- 01. 아고스비전에 대해 소개해 달라.
- 02. 기업 설립 배경은 무엇인가?
- 03. 아고스비전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 04.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Answers

- 01. 아고스비전은 사람의 눈처럼 넓게 볼 수 있는 광시야 3D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다. 3D 카메라는 일반적인 카메라와는 다르게 촬영된 영상을 컴퓨터로 인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기존 3D 카메라는 사람의 시야 크기에 비해 상당히 좁은 시야만을 제공했지만, 광시야 3D 카메라는 사람 수준의 넓은 시야를 제공해 로봇의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02. 아고스비전은 다차원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단<sup>CISS</sup>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CISS에서는 여러 센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해 기존 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가 아고스비전의 모태가 되었다. 이에 회사 이름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눈이 100개 달린 거인 아르고스 판옵테스<sup>Argos Panoptes</sup>에서 따왔다.
- 03. 사람의 시야 크기는 수평 200도 정도인데 기존 기술로는 3D 카메라의 시야 크기를 120도 이상 넓히기가 어렵다. 하지만 아고스비전은 3D 카메라의 시야를 수평 270도, 수직 160도까지 넓히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시야를 넓히면 로봇이 주변의 장애물뿐만 아니라 바닥의 단차도 인식할 수 있고, 50c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의 전신 동작을 인식할 수 있다.
- 04. 광시야 3D 카메라는 시장에 처음 소개되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다. 이에 우리는 기존 3D 카메라와 경쟁하기보다는 현재 서비스 로봇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더<sup>LIDAR</sup> 센서를 대체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능형 로봇뿐만 아니라 지능형 관제 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각종 지능형 시스템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광시야 3D 카메라 기술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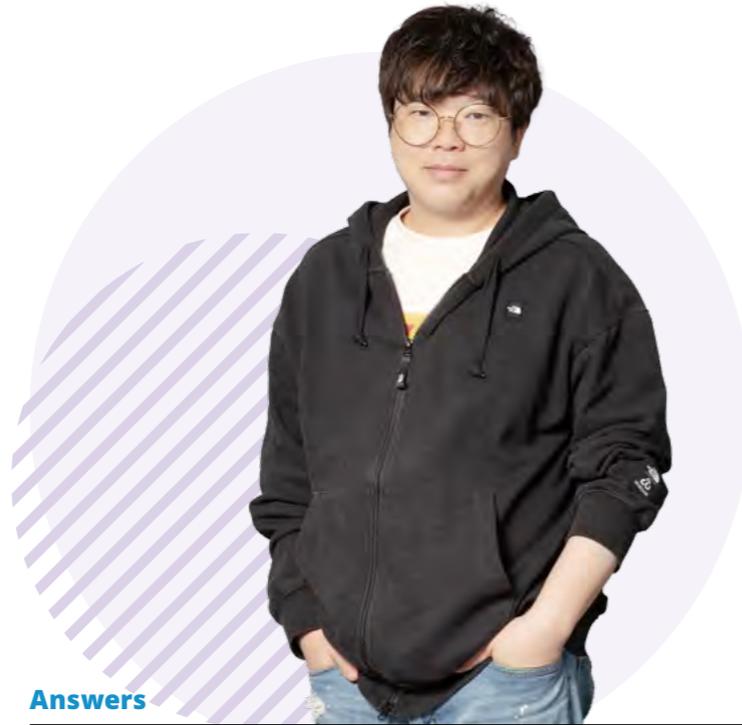
우리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광시야 3D 카메라가  
앞으로 지능형 로봇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8기  
(주)알앤제이글로벌비스

오영철 대표

환경과 제품,  
친환경 포장으로 모두 지키다

알앤제이글로벌비스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 제품과 빅데이터 기반의 포장 솔루션을 통해 친환경 물류 포장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Questions

- 01. 알앤제이글로벌비스에 대해 소개해 달라.
- 02. 해당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03. 알앤제이글로벌비스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 04.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Answers

- 01. 알앤제이글로벌비스는 지구와 제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제안하는 친환경 물류 포장 솔루션 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 종이 완충 포장재, 종이 아이스박스, 종이 테이프 등이 있으며 물류 배송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종이 제품으로 대체해 고객이 친환경 포장을 통해 물건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송하고 배송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02. 현재 국내 포장 시장의 규모는 약 60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약 20조 원 이상이 플라스틱과 비닐 포장재 시장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 트렌드로 미루어봤을 때 포장 시장은 향후 5년 이내 친환경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국내 친환경 포장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친환경은 현재 모든 기업의 중요한 경영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국내 포장 시장의 5%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03. 우리의 핵심 기술은 펄프 코팅 기술이다. 기존 종이 포장재의 약점으로 꼽히는 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성 아크릴 코팅 기술을 펄프에 접목했다. 현재 수산물이나 액상 포장 등과 같이 습기로 인해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04. 현재 개발하고 있는 '친환경 물류 포장 전문 플랫폼'을 완성해 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소비자가 배송할 제품의 정보를 입력하면 친환경 포장재를 활용한 포장 컨설팅을 하고, 이에 맞는 포장재 구매와 배송 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고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친환경 물류 전문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의 개발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포장재 시장의 변화를 넘어 물류 업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친환경 소비재를 제공하고  
상품의 파손을 막을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을 통해  
포장재 시장을 넘어 물류 업계에  
변화를 불러오겠습니다.

대전 3기  
(주)마이링크

박상일 대표

중소·중견 제조 기업을 위한  
솔루션 플랫폼

마이링크는 중소·중견 제조 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업무 중심의 협업과 기업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팩토리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Questions

- 01. 마이링크에 대해 소개해 달라.
- 02. 제조 전사적자원관리ERP 협업·연계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 03. 마이링크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 04. 마이링크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Answers

- 01. 마이링크는 중소·중견 제조 기업을 위한 제조 ERP 협업·연계 플랫폼 기업으로, 제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SaaS로 제공하고 있다.
- 02. 중소·중견 제조 기업은 높은 비용과 대기업 기준으로 구성된 정보기술IT 솔루션으로 인한 사용의 어려움, 효과의 불확실성, 물류·품질·생산 등 다양한 솔루션의 단절된 운영 등으로 제조 IT 솔루션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마이링크의 제조 ERP 협업·연계 플랫폼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객사, 공급사 그리고 협력사 간 협업을 위해 개발한 플랫폼이다. 이미 대기업에서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 기능을 중소·중견 제조 기업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SaaS를 통해 선택형과 구독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 03. 제조 업무에 필요한 솔루션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마이링크는 해당 솔루션을 직접 구축한 경험이 있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차별화된 핵심 기술은 '멤버들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빅데이터 수집, 가변형 제조 업무 워크플로 기술을 특허 출원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조 솔루션 기술을 특허 출원할 예정이다.
- 04. 전 세계적으로 제조 플랫폼 시장은 260억 달러 수준으로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도 5조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그중 제조 SaaS 시장 규모는 1,000억 원 정도로 전체 제조 플랫폼 시장 규모에 비하면 1% 정도의 매우 작은 시장이며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제조 외 다양한 기업 간 거래B2B SaaS 플랫폼 회사의 성장에 따라 제조 SaaS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이링크 또한 국내외 제조 SaaS 시장에서 활약하며 시장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함께하는 멤버들이 있기에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몸담아 온  
제조 IT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성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 지역에도 청년이, 새로운 시작이 있다 경남 '지역청년 창업활성화 현장 간담회'

지난 4월 21일, 경남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는 IBK기업은행과 김해시, (사)청년창업가협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지역청년 창업활성화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한 스타트업과 5년 이상 지역에서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과 김석기 김해시 부시장, 박성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 김학범 청년창업가협회장은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 김해, 청년 창업의 열풍을 일으킬 허브 도시

청년창업가협회는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사명 아래 2013년 출범한 단체로, 현재는 서울과 경기, 강원과 전남, 대전과 세종에 지회를 두고 점점 더 많은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하는 중이다. 김학범 청년창업가협회장은 "어렵게 내어주신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토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인사말로 간담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축사를 맡은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청년과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소감과 함께 "지역이 잘되어야 대한민국이 잘된다는 사실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곳 경남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올라가면 청년 창업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많은 힘이 실릴 것"이라는 말로 이번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경남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청년 창업 활성화 간담회 장소로 김해가 선택된 것 역시 조봉현 부행장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 물론 산업적으로 가장 활발한 곳은 창원 이 첫손에 꼽히지만,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은 인구 구성과 제조업뿐 아니라 콘텐츠 분야 창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경남과 부산을 잇는 허브 역할을 하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선정이었다. 이어진 IBK기업은행 창업 지원제도 안내 순서에서는 정유석 IBK경제연구소 박사가 IBK기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특별 지원 상품과 기업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IBK창업<sup>HR</sup>을 통해 다양한 심화 프로그램과 전문 IR 교육 이후 후속 연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유석 박사에 이어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김해시의 창업 지원제도 소개가 마무리된 후, 조봉현 부행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축사를 하는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조 부행장은 지역이 잘되어야 대한민국이 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 창업 열풍이 경남에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응원과 다짐의 말을 전했다.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IBK

청년 창업가들은 그동안 느꼈던 여러 어려움들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그중 가장 먼저 지적된 부분은 은행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점. 이제 막 시작하는 창업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조봉현 부행장 역시 깊이 공감했고 "대출보다는 투자를 늘려 성공적인 창업 사례를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IBK기업은행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전문 자회사가 설립되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한 청년기업가는 "창업 이후 지금까지 가장 큰 고민은 항상 금전적 부분"이라며 "특히 요즘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생각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조봉현 부행장은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지만, 수요자와 공급자 간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로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아렸다. 이어 "이차보전 대출 상품의 경우 2% 포인트 내외까지 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남 및 김해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동반성장협력사업'을 체결할 경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도 전했다.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이주 비용과 주



거비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는 김석기 김해시 부시장의 "향후 김해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밝혔다. 박성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 역시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경남 창업 허브'까지 김해시가 선정된다면 진정한 청년 창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 행사 말미, 조봉현 부행장은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IBK기업은행이 이러한 의견들을 협회, 지자체와 함께 성숙시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 함께한 참석자들은 자신이 혼자 아님을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IBK기업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다. 덕분에 분위기는 더없이 화기애애했다. 김해로부터, 경남으로부터 청년 창업의 뜨거운 바람이 시작된 현장이었다. 

'지역청년 창업활성화 현장 간담회' 현장  
지역 청년과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로 간의 교류를 나눌 수 있었던 이번 간담회를 통해 IBK기업은행은 다시 한번 청년과 창업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했다.



#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지난 3월 28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 대표 20인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금융·비금융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김 행장은 이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주)한국에이엠에프와 (주)해성아이다를 방문해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것을 약속했다.

## 대한민국 1등 도금 기업을 향해 (주)한국에이엠에프

1998년 창업해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한국에이엠에프는 자동차부품 도금이 주력 사업이다. 무전해 니켈 도금, 아노다이징 도금, 주석 유광 도금, 주석 무광 도금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해 전문 도금 기업으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다.

40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이 2022년 기준 2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정도로 업계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생산 제품의 높은 완성도 높은 고정 고객들을 확보하는 중요한 근간이다.

한국에이엠에프를 이끄는 장금창 대표는 IMF 외환위기로 대한민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던 시절에 창업해 남다른 혁신과 도전을 통한 특화된 기술로 '품질은 기본, 납기는 신속, 원가는 최저'를 모토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업을 성장시켜 왔다.

김 행장의 방문을 환영한 장 대표는 "법인 전환 전부터 늘 IBK기업은행과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이어 왔다. 특히 우리 회사가 현재 공장으로 이전한 뒤 영업이익까지 마이너스가 될 만큼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IBK기업은행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그 덕분에 3년 만에 순이익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 한국에이엠에프는?

1998년, 외환위기로 술한 회사들이 문을 닫던 시절에 문을 연 한국에이엠에프는 당시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였던 무전해 니켈 도금 기술을 익혀 오늘날의 기틀을 잡았다. 이처럼 매 순간 혁신을 이뤄 나가는 기술력은 한국에이엠에프를 이룬 근간이다. 특히 미세한 돌기가 많아 가공 업체에서도 힘들게 만든 제품들을 도금하는 '내식성 향상 표면 처리' 기술은 한국에이엠에프가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기도 하다.

이후 염수 분무 테스트나 강도 테스트, 도금층 엑스선 X-ray 측정, 주사전자현미경 SEM 측정 등을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고품질을 성실히 달성하며 업계의 신뢰를 받아 온 한국에이엠에프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60% 정도인 공장 전체 가동률을 100%로 끌어 올리고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부품의 도금 라인 또한 올해 추가로 증설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기차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면서 향후 대한민국 1등 도금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에이엠에프가 나아갈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보자.



한국에이엠에프에 방문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한국에이엠에프는 자동차부품 도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 글로벌 명품 브랜드, 우리 가족에서 시작합니다 (주)해성아이다

해성아이다는 1999년 설립해 올해로 24주년을 맞은 피혁 기업으로서 핸드백을 주력으로 신발과 소파용 최고급 피혁 등을 생산하며 물량의 90%를 전 세계 명품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다.

양영대 대표는 창업 이전에 15년간 피혁 업체에서 몸담아 왔다. 약품, 원자재 수입, 제품 수출 등 대행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피혁 산업 전반에 관한 노하우를 섭렵한 뒤 직접 창업에 뛰어들었다.

외환위기 당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창업한 양 대표는 피혁 산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믿고 그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면서 모두의 만류를 뒤로 한 채 창업을 감행했다.

양 대표는 기업 운영 전략으로 내수가 아닌 수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력 상품을 신발에서 핸드백 소재로 바꾸면서 고부가가치 가죽 원단 개발에 성공해 다수의 세계 명품 브랜드들을 고객사로 삼았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성아이다는 창업 이래 매년 100억 원씩 매출이 신장해 5년 만에 5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고 '무역의 날'에는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IBK기업은행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길 소망하는 해성아이다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해성아이다에 방문한 김 행장 해성아이다는 고부가가치 가죽 원단 개발에 성공해 세계 명품 브랜드를 고객사로 삼고 있는 기업이다.



### 해성아이다는?

1999년 외환위기를 기회로 삼아 창업한 해성아이다는 당시 피혁 산업이 3D Dirty-Dangerous-Difficult, 공해 유발 업종이라며 사양산업으로 취급받던 분위기 속에서도 가죽은 가구, 핸드백, 신발, 자동차 시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계속 성장할 벤처사업이라는 확신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최고의 피혁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를 영입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샘플을 만들었고, 이는 해외 브랜드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해외 바이어들이 해성아이다를 두고 "전 세계 태너리 Tannery 중에서 해성아이다처럼 깨끗한 최첨단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회사가 없다"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 또한 피혁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의 결과다. 가죽 내피에 PU 백킹 PU Backing 작업을 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해성아이다는 오늘도 글로벌 기업을 향한 목표로 무척하게 견고하다.



# 어려운 기업 세무·회계, IBK가 도와드립니다 ONE-POINT 세무·회계 컨설팅

‘원포인트 ONE-POINT 세무·회계 컨설팅’이란 대면 컨설팅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업점 직원을 위한 기업 세무·회계 전화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창구 ☎ 02-729-7208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사례 1 ○ 대표이사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익금을 수령할 때, 급여와 배당 중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IBK's One-Point Solution**

**A. 법인의 대표이사는 배당보다는 급여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는 금액에 따라 6~45%의 소득세율로 과세되며, 배당의 경우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2,000만 원 초과분은 6~45% 소득세율로 과세된다. 대표이사 개인 측면에서 급여나 배당의 경우 모두 소득세로 과세되므로 세 부담 면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법인이 절반 부담하는 반면, 배당은 전액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 측면에서 급여는 전액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급여액만큼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

나, 배당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동일 금액이라면 배당보다는 급여로 수령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와 △개인의 건강보험료를 함께 줄일 수 있어 유리하다.

구분	급여	배당
재원	법인의 세전 금액	법인의 세후 금액
비용 처리	법인의 비용 처리 가능	법인의 비용 처리 불가
과세 방법	소득세 과세(최저 6%~최고 45%의 소득세율 적용)	
건강보험료	개인 50%씩 부담	개인 100% 부담

사례 2 ○ 개정된 신<sup>新</sup>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유한회사 A는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나, 세무사 사무실 및 A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IBK's One-Point Solution**

**A. 2020년부터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한회사는 우측 표의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A사는 2022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 80억 원, 매출액 147억 원, 종업원 수 226명으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2023년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미인식한 부채 등을 일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재무 지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으므로 IBK 컨설팅을 통해 대비할 것을 추천한다.

① 자산	② 부채	③ 매출액	④ 종업원 수	⑤ 사원 수
120억 원 이상	7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구분	감사인 선임 기한(12월 결산법인 예시)	
초도감사 법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3.4.30
계속감사 법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2023.2.14

사례 3 ○ 국내 B법인은 영업상 불가피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 가지급금이 과도하게 쌓인 상황입니다.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BK's One-Point Solution**

**A. 법인의 가지급금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현금이 지출되었으나 그 내역이 불분명해 임시계정으로 표시해 놓은 것으로, 가지급금을 통해 법인은 법인세가 증가하고, 대표이사는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 이에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후 해당 금액을 회사에 다시 납입해 가지급금을 회수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	법인세 증가	내용
·	·	·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과세 ·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만큼 이자를 계산해 법인에 과세
·	·	· 지급이자 비용 불인정 · 차입금이 있어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내용
·	·	· 이자상당액 회사에 미납 시 과세 · 가지급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 말까지 이자상당액을 회사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대표의 소득으로 간주, 소득세 과세
·	·	· 청산 시 가지급금 과세 · 남아 있는 가지급금 전액을 대표의 소득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

사례 4 ○ 3년 전 C법인은 공장을 50억 원에 매입했는데, 이때 차입금을 사용해 부채비율도 550%로 상승했습니다. 이후 최근에 H기업의 1차 벤더로 등록하고자 했으나, H기업에서 등록 요건으로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줄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IBK's One-Point Solution**

**A. 부동산 재평가는 법인세 부담 없이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C법인이 구입한 공장의 현재 예상 감정평가액은 약 70억 원으로, 부동산 재평가 시 토지가액이 20억 원 증가해 재평가잉여금도 20억 원 증가한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은 550%에서 230%로 감소하고, H기업에서 제시한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재평가는 법인세 부담이 전혀 없고 자금 부담도 없다.

# 온라인 진출을 꿈꾸는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패키지 수출지원 프로그램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과 국제 정세가 끝없는 터널에 들어선 듯 어두컴컴하다. 어둠 속 한줄기 빛과 같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수출의 위기를 타개할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에 찾아온 수출의 위기

2022년 우리나라 수출 점유율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2.6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74%로 발표되었다. 매일경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교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점유율은 반도체를 포함해 선박, 철강 등 주력 산업이 호황을 맞은 2017년 3.23%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지속 하락했다는 것이다.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선박, 무선통신 기기, 디스플레이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수출 약세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9%에서 이후 20% 선을 밑돌고 있고 2023년 1분기에는 13.6%까지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줄곧 흑자를 내던 대외수출 수출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수출 점유율이 0.1%포인트

트 하락하면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한국무역협회의 분석 결과도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수출의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우리 경제의 최대 버팀목으로 꼽히는 수출의 위축세는 중소기업에서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이 중소기업 쪽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전년보다 1.7% 늘어난 1,175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6,837억 달러로 전년보다 6.1% 늘어난 것에 견줘볼 때 미미한 증가 폭이다. 이 또한 국내 중소기업 주력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 수출이 줄어들고,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산업연구실장  
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전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 최근 5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현황

	2018	2019	2020	2021 (A)	2022 (B)	증감률(%)	
						전년비 (B/A)	연평균 (2018~2022)
수출액(백만 달러)	83	142	348	658	715	8.6	71.3
수출 기업(개사)	666	1,060	1,634	3,141	3,815	21.5	54.7

주 온라인 수출: 관세청 정식통관자료 중 수출신고서상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건

##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이 받게 되는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입점·판매	아마존, 쇼피, 타오바오 등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를 위한 현지어 상품 페이지 제작, K-상품 기획전 등 마케팅, 고객 대응 및 배송 대행
제작·홍보	목표 수출 국가의 문화, 소비 트렌드 등을 반영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마케팅
물류	온라인 수출 기업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풀필먼트(Fulfillment)* 지원 및 물류사와의 협약을 통한 물류비 상시 할인
홈페이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해외향 자체 온라인 쇼핑몰(자사몰) 구축

이번 온라인 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못한 중소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입점, 물류 지원 등 온라인 수출지원 개별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과 국제 정세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수출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이 정부의 온라인 패키지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지렛대 삼아 난국을 헤쳐 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풀필먼트  
물류센터에 물품을 보관하고, 고객 주문에 맞춰 보관된 물품을 최종 고객에게 신속 배송하는 일련의 과정.

## 온라인으로 해외 소비자와 만나다

다만,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관세청 집계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은 전년보다 8.6% 늘어난 7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수출액 9억1,000만 달러 중 78.4%에 해당하며, 전년에는 이 비중이 76.7%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품목별로는 음향기기(38%), 컴퓨터(101.2%) 등이 강세를 보였고,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수출이 활발해 온라인 방식의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온라인 수출 분야는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해외 소비자와 거래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물류·통관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해 왔다. 다만, 각 지원 프로그램이 단절적으로 운영되어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과 판단에 따라 2023년 1월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0개사를 선정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업상속공제 완화, 가업승계의 문턱을 낮추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승계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더 많은 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에 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가업승계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정현주**  
세무법인 세일 화성지점 대표세무사  
전 IBK기업은행 기업지원 컨설팅부 수석세무사로 근무하며,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을 100회 이상 진행한 바 있다.

###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1997년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되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제도다. 기존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 지분 요건이 '최대주주이며 지분 50%(상장 30%) 이상 10년 이상'에서 '최대주주이며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이상 보유'로 완화되었다.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요건이 20%에서 40% 이내로 완화되었다.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유지 비율도 100%에서 5년 통산 90%로 낮아졌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사전 요건은 동일하고, 후계자는 3년 이내

에 대표이사에 취임해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한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10%(60억 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한다.

### 사업무관자산의 관리

가업승계를 떠올리면 가업주식에 대해 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가업주식 전액에 대한 공제를 받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법인의 가업주식에서 사업용 자산의 총자산 비율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가업주식에서 사업무관자산의 총자산 비율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일반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회사의 사업무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및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업무무관자산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가지급금 등 타인에게 대여

한 대여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가지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 상품 등이 포함된다.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100% 사업용 자산)을 공제하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 양도세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로 납부하도록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상속세를 정산해 납부한다.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하고 10년 이후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2023년부터는 상속세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 업종 유지 요건은 없지만, 상속인은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가업용 자산의 40% 미만으로만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구분	증여세 과세특례 방식	가업상속공제 방식	납부유예 방식
적용 대상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법인만 가능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적용 혜택	증여 시점에 10억 공제 후 10% (60억 초과분은 20%) 증여세 과세	상속재산 공제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된 상속세 금액 납부유예
한도	300억~600억 원	300억~600억 원	한도 없음
사 후 관 리	기간	5년(3년 내 대표 취임)	5년
	업종 유지	대분류 내 변경 허용	대분류 내 변경 허용
	고용 유지	-	5년 평균 근로자 또는 급여액 90%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상속받은 지분 유지
자산 처분	-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불가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불가
국외 주식, 파생상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상속 시점에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 정산 (납부세액은 공제)	상속공제 후 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세 납부	담보 제공 필요, 납부 시점에 이자상당액을 가산



###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제도

#### 신청대상

- ①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가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②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 기간행 중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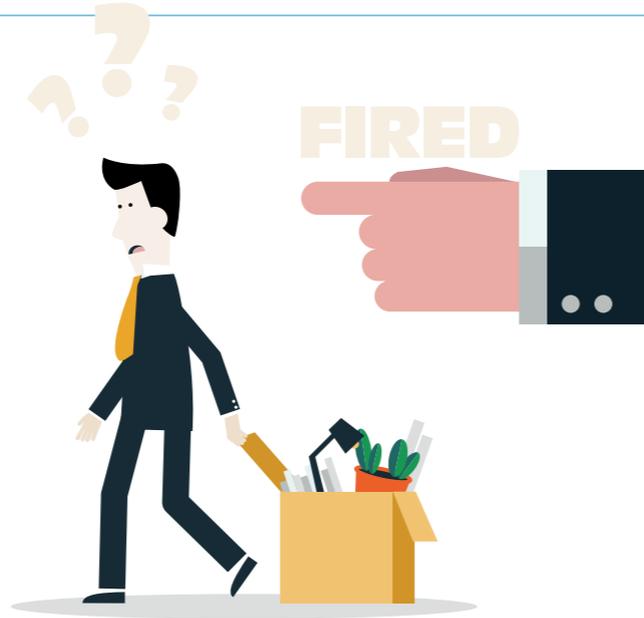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 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 국세청 소득재산과에 접수 신청

#### 내용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 자문 정기 1회 이상 및 수시 자문을 지원. 기업을 방문해 자문 시점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위한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을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문을 제공.

# 부당해고가 되지 않으려면? 고용 종료 시 알아 두어야 할 '해고 제한 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 해지 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 제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자.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외국계 기업의 노무 인사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0여 년간의 노무 경력을 활용해 다양한 노동 사례 실무서적을 발간해 왔다.

민법은 '계약자유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은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을 전제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중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 근로자는 언제 실직될지 모르는 위험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 관계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헌법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어 법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거나 정년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등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로 인

정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경영상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두979).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의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3조). 정당한 사유를 필요로 하고, 해고 시기에 제한을 받으며, 해고 절차에 있어서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한 계약 종결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해고 사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4조)에서는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①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고 불량품을 납품 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②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③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④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⑤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장기 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⑥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 ⑦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해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⑧ 사업장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⑨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해고 시기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이는 근로자가 노동력을 상실한 기간이나 효과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설정한 규정이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사법상 해고는 무효가 된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일시 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 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3조).

## 3 해고 절차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서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없다. 이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게 해결되고, 근로자에게는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27조).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예고 규정은 해고의 정당한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고 예고 자체를 했다고 해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민법이 일반법의 차원에서 대등한 당사자 간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립했다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은 특별법으로서 강행 규정을 정해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 적용된다.

#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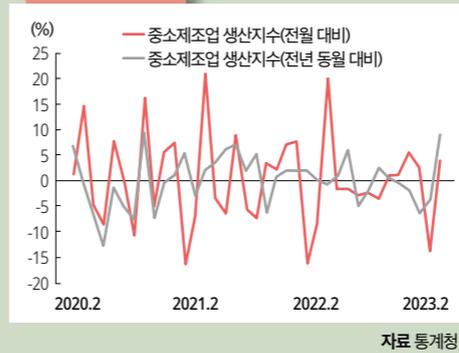
## KOREA

### 물가



**물가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수출은 부진한 흐름 지속**  
3월 소비자물가는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다. 물가 상승 폭은 축소(4.8%→4.2%)되었으나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OPEC+의 감산 결정,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재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물가는 목표 수준(3.5%)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수출(551.1억 달러)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악화 흐름이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3.8% 감소하고, 석유제품(-16.6%), 철강(-10.8%) 등 중간재 수출도 감소했다.

### 생산



#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전월 대비 증가**  
2023년 2월 중소기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는 4.1%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1차금속(5.1%), 화학제품(3.3%), 기계장비(3.1%)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17.1%), 자동차(-4.8%), 통신·방송장비(-16.4%) 등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자동차(26.2%), 통신·방송장비(43.9%), 기계장비(8.6%)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41.8%), 전자부품(-36.3%), 화학제품(-17.3%)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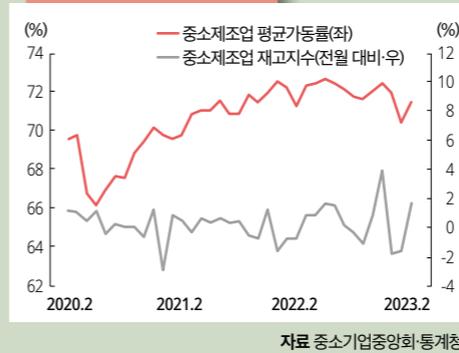
## Exchange Rate

### 원/달러 환율 동향



**4월 원/달러 환율은 크게 하락 후 반등**  
(2023.3.24일 1,287.2원→4.17일 1,299.3원→4.18일 1,311.3원)  
4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도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되어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2분기 말 환율 전망은 1,282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3년 2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은 평균 1,282원으로 조사되었다. '1,260원 이상 1,290원 미만'으로 전망한 IB가 스탠다드차타드(1,280원) 등을 포함해 6개사로 가장 많았다.  
\* 환율전망 응답 시기: 2023.3.23~4.17일

### 가동률 및 재고



**가동률, 전월 대비 상승**  
2023년 2월 중소기업 전체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상승한 71.5%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소기업(5~49인)은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67.6%, 중기업(50~299인)은 1.4%포인트 상승한 75.9%로 조사되었다.  
\*2023년 1월 조사부터 신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재고, 전월 대비 증가**  
2023년 2월 중소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3.9%), 기계장비(5.7%), 전자부품(9.5%)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기장비(-3%), 통신·방송장비(-9.1%), 의료정밀광학(-6.2%)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 원/100엔 환율 동향



### 원/유로 환율 동향



### 원/위안 환율 동향



### 고용



**취업자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3년 2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1,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3,000명 증가,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19만8,000명이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468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3년 2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 명이 증가해 553만6,000명을 기록했다.

# CEO의 즐거찾기

최고경영자<sup>CEO</sup>의 지식, 품위, 즐거움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리스트.



## APP



스타트업·중소기업 CEO를 위한 앱

### 씨오톡

씨오톡<sup>Cotalk</sup>은 스타트업·중소기업 CEO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커뮤니티 서비스로, CEO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고충을 익명으로 공유하며 의견과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채널이다. 또한 기업 분석 알고리즘 '씨오'를 적용해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22개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해 기업의 조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정책자금 알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 밖에 기업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법률, 노무, 세무 등의 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다.

## BOOK



챗GPT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 한경무크 챗GPT 2023

한경비즈니스 지음

챗GPT<sup>ChatGPT</sup>가 촉발한 '생성 인공지능<sup>AI</sup> 쇼크'에 너도나도 챗GPT와 대화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그 성능에 놀라워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 탓에 어리둥절해하는 사람 또한 태반이다. 이 책은 챗GPT에 대한 개념과 투자, 영향을 받을 산업 분야까지 총망라한다. 챗GPT의 기반이 된 생성 시와 초거대 시의 개념은 무엇인지, 이를 산업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업계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등 생성 시의 개념은 물론, 관련 업계 현황을 담고 있다.

## FORUM



국내 유일의 기계설비 종합 전시회

### 2023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

일시 2023년 5월 10~12일

장소 서울 코엑스<sup>COEX</sup> A홀

국내 유일의 기계설비 종합 전시회 '2023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sup>HVAC KOREA</sup>'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냉난방 공조, 특수설비, 자재류 등 기계설비 전 분야, 모든 품목의 우수한 신제품 및 신기술을 소개하는 기계설비 종합 전시회다. 다양한 주제의 전문 세미나를 함께 개최해 업계 전문가를 비롯한 기계설비 산업의 관계자들이 모여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제공한다.

## WEB



비즈니스 리더의 경영 지식 콘텐츠

### 동아비즈니스리뷰

<https://dbr.donga.com/>

고품격 경영 매거진을 표방하는 동아비즈니스리뷰<sup>DBR</sup>는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경영·경제 소식뿐 아니라 인문,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심층적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경영인에게 해안을 줄 수 있는 콘텐츠와 함께 교육, 포럼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초점을 맞춘 심층적인 콘텐츠를 현장의 생생한 케이스와 함께 다루며 콘텐츠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구독하면 매거진은 물론 프리미엄 온라인 사이트, 이메일 뉴스레터, 오프라인 강좌 등도 이용할 수 있다.



# IBK ESG-산업안전 심화컨설팅 신규 지원

## 'IBK ESG-산업안전' 심화컨설팅이란?

ESG경영 중 중소기업에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산업안전 요소를 관리하고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진단·위험성 평가**를 지원하는 컨설팅

### 01 추진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2022.1.27.) 이후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대응 부족
- 유럽연합<sup>EU</sup> 공급망 실사에 따른 수출 기업, 대기업 협력사 등의 중소기업 ESG 평가 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규제사항 대응, 재해발생 실적 등 산업안전과 관련한 항목이 중점사항으로 고려

#### ※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기업 리스크

- ① 사망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 ② 사망재해(부상·질병) 발생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10억 원 이하 벌금) ★양벌 규정★

### 02 지원 대상

-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사업장 또는 고위험산업군에 속한 업종\*  
\* 기계 및 금속제품 제조업, 식품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및 시행 시기	구분(근로자 수 기준)	50인 이상(건설공사 50억 원 이상)	5~49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5인 미만
법인(기관)		2022.1.27 적용	2024.1.27부터 적용	법 적용 제외
개인사업주		2024.1.27부터 적용		법 적용 제외

### 03 제공 내용



- 교육**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 관리 목적 및 필요성, 중대재해 예방관리 도입 기초
- 진단**  
사업장 안전점검·진단  
사업장 현장 안전점검 및 진단, 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프로세스 구축
- 컨설팅**  
위험성 평가 컨설팅  
유해·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 방안, 위험성 평가 결과 보고서 제공

### 04 신청 방법 및 안내 사항

거래하시는 'IBK영업점'을 통해 희망하시는 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IBK컨설팅센터는 중소기업 ESG경영 개선을 위해서 산업안전뿐 아니라 ESG 전반에 대한 교육·정밀진단, 심화컨설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BK컨설팅센터 ESG컨설팅팀(☎02-2031-3356)에 문의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768호(2023.04.07) 유효기간(2024.04.06)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 쉬운 경영은 없지만 쉬운 배킹은 있습니다



기업에 담긴 당신의 진심을 알기에  
60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더 나은 기업금융의 길을 걸어갑니다

## IBK기업뱅킹

- 고객별 맞춤으로 쉽게!**  
자산관리서비스, 알림 서비스 등 고객 유형별로 맞춰 편리한 이용
- 비대면으로 빠르게!**  
영업점 방문 없이도 대출, 외환 업무와 개인 및 법인 카드 발급까지 가능
- 자금통제로 안전하게!**  
다단계 결제, 다양하고 편리한 결제라인 야간/주말 이용시간을 안전하게 제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651호(2023.02.13) [유효기간 : 2024.02.12]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든다는 새로운 세상

#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누군가는 기업에서

꿈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도 합니다.

기쁨이픈 실패에 울고,

보람듯 웃으며 이겨내고

이 순간도 누군가는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한다는 건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